

조경설계, 안녕하십니까

1. 조경, 제도(製圖)가 문제인가? 제도(制度)가 문제인가? - 최정민 (순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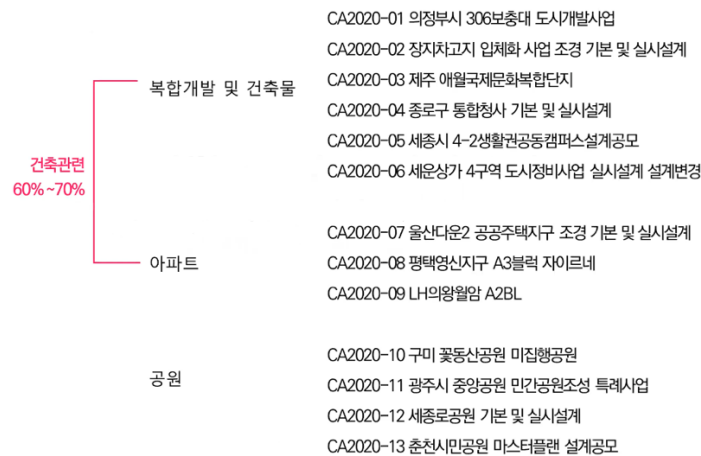
- 조경에서 제도는 중요했지만, 설계회사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로 대체되어 있었고, 손 그림보다 훌륭한 실제 결과를 보여주고있음. 제도판은 실무에서 다 없어졌지만 학교에만 있음. 여전히 기사 시험은 펜드로잉으로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제도만 강조되고 있음
- 돌이켜보면 그 조경설계라는 것이 마켓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은 오래되지 않음. 겨우 80년대 중반에야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90년대 본격적으로 마켓 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경이라는 것은 통역이 필요한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경과 일반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조경이 많이 다른 것 같음
-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은 작품들이 조경가가 누구이다 이렇게 이름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음. 또는 반대로는, 어느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가 너무 많음. 실제로 그 메인 설계해버렸는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런 게 뭐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 결국은 사회적 산물임. 그렇다면 조경은 어떻게 생산될까를 고민해 보면, 조경시장은 대체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민간과 공공이 3 대 7 또는 4 대 6 이렇게 얘기를 함.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주요 내용들은 민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음. 민간은 설계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자유로운편임. 하지만 공공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함
- 이런 시스템에서 조경설계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조경설계 사무소 이름으로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 공모 밖에 없음. 근데 그 설계 공모도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님
- 또 작은 설계사무소들은 그 공모안을 만드는데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선불리 대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임. 시공분야도 마찬가지임.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하도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형식이었음. 하도급자로서 설계사무소는 원 설계에 비해 50%에서 70%만이 주어짐
- 그러면 그렇게 설계비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유지될 수 없음. 장사로 얘기하자면 박리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조경을 위해서 담론 형성에도 조금씩 시간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음. 그럴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

- 설계사무소가 마치 야근 박봉의 대명사가 되어, 학생들은 취업을 회피하고 있음
- 조경은 누구나 갖고 관심이 있고 또 조금만 공부를 하면 본인이 조경을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함. 그렇다면 우리가 조경을 하는 사람으로써 조경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은 조경가들이 경쟁력을 갖는 건 다른 질적 차이를 나타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질적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런 자문을 하게 됨.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른 분야에 비해 조경가가 조경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임
- 제도가 만드는 도시 (국토) 조경이 조경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
- 조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음. 조경진흥법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컨트롤도 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과 조경에 '또 나왔다... 조경가 못 들어가는 공원 설계 공모' 라는 기사를 보면, 공원이라고 이름 붙은 설계 공모인데 조경은 참여를 못함. 우리는 지금까지 법이라고 하면 법이 디자인을 제한하는 것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왔음
- 실제로 이런 공무원의 유념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간에 유형을 담아내지 못하고 현대 조경이 지향하는 가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옴.
- 그런데 되돌아보면 조경을 지금까지 자리 잡게 했고 조경을 먹여 살리는 제도는 건축법 시행령 15 조였음
- 조경 제도만 아니라 제도를 디자인 해야함.조경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빚어낸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서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기 어려움.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에 적용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정당한 설계비, 설계자로서의 크레딧을 받는 것,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설계 사무소들이 설계 사무실 이름을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조경 설계 공모를 제도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한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조경서비스 산업진흥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음

2.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설계절차 : 계약과 업무분장 그리고 심의 - 조용준 (CA 조경)

- 작년 기준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보면 아파트를 포함해서 건축 관련된 프로젝트가 약 60 에서 70%를 차지하고 조경 프로젝트가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음
계약과 업무 분장 그리고 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 협력사로서의 조경 그리고 또는
총괄로서 적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했음. 다른 회사 경우도 프로젝트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력사로서 때로는 총괄로써 조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프로젝트의 종류 비율



- 종로소방합동 청사 프로젝트. 운생동과 포스코의 NC 건축 사무소와 현상공모를
참여했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공증별 설계비 예산 배분표를 보면 건축이 약 47% 그리고
나머지 분야들이 53% 정도 됨. 조경이 5% 정도 되는데 설계비로 환산하면 약 4 억 5000 만
원 정도 됨. 그런데 조경설계 및 기준이 비해 설계비 자체가 낮은 이유가 건축에서 외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추세로 보면 건축에서는 외주 비용을 30 에서 35%
정도까지 축적하고 있음.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설계비가 적정한 설계비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종로구청 프로젝트 업무 분장 및 과학 스케줄 표를 보면, 약 307 개의 심의와 인증절차
과정에 있음. 건축의 경우 시니어 절차를 진행함. 이런 과정은 설계 업무의 한 부분임.
총괄역할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의 업무들에 대한 설계비가 없음. 그러다
보니 건축 입장에서 이런 비용들을 협력 업체의 설계비에서 총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의 공동도급으로 계약하게 되면 설계비에 대한 적정비율을 받을
수 있음.이 양식은 공모지침서 있었던 공동도급 협정서임. 그런데 조경의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님. 그래서 이 서류 없이 공모에 참여했고 만약에 이

서류를 작성해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설계비를 받았을 것임. 조경의 역할로 볼 때 공공건축물에서 외부 공간은 너무나 중요함.

- 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건폐율 60%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40%가 외부 공간임. 따라서 적정비율로 결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함. 따라서 공공건축물 공모시 조경업체의 공동계약에 대한 필수지침을 넣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봄. 두 번째는 총괄로서의 조경역할이 필요함

01. 협력업체로서의 조경

설계비

각 공종별 예산 배분 비율

공종	비율(%)	비고
일반	10%	
건축	40% 내외	
토목	3%	
조경	5% 내외	
기계	15% 내외	
전기	10% 내외	
통신	10% 내외	
전기/기계 소방	3%	
신재생에너지	3%	

* 설계 시 예산 배분 비율이 달라질 경우 상무직을 협의하여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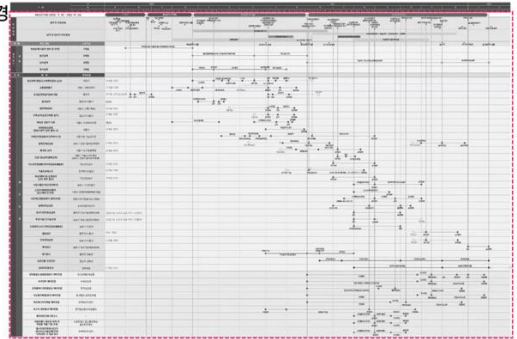
건축 50% : 외주비용 50%

건축 65~70% : 외주비용 30~35%

01. 협력업체로서의 조경 총괄의 역할과 비용

총괄 업무의
범위와 비용

각종 보고
설계 취합
각종 협의 및 공종간 조율
일정조율
대부분의 심의참여
설계 및 도서 검토 등



-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공원 현상 프로젝트를 할 때 엔지니어링과 함께 참여함. 이때 설계비 비율을 당선 이후에 업무분장 기준으로 나누기보다는 임의로 설계비를 배분하게 됨. 그래서 나중에 당선이 되면 업무 분장을 할 때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음. 또한 조경설계 부분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주체도 조경이 함께 참여함. 그러다 보니 설계사무소의 조경과 엔지니어 조경이 어떤 업무부장 자체도 더욱 또 모여지는 경우가 생김
- 최근의 한 공원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파티의 설계 오류로 공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음. 이런 경험들로 봤을 때 계약의 방법 그리고 명확한 업무 분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광화문 광장 프로젝트 업무 분장표를 보면 엄청 많은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설계 범위로 보면 조경의 범위가 가장 큼. 하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링과 건축의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조경이 총괄이기 때문에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함. 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인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 또는 어떤 회사에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총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편차가 매우 커지게 됨
- 그래서 총괄로써 조경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건축과 엔지니어링과 비교해볼 때 조경설계 사무소에 총괄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는 계열 개인의 편차도 크지만 전반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조경인 전문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회라든가 업계 차원에서 타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교육 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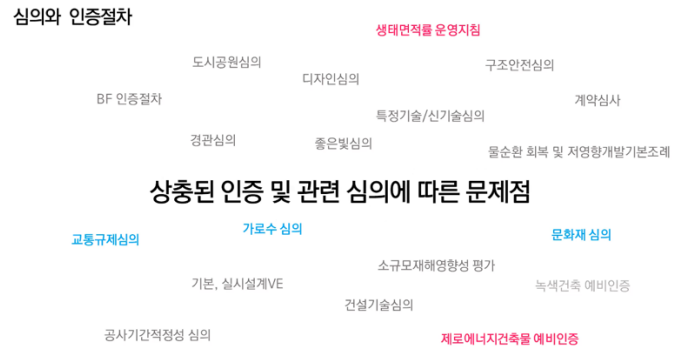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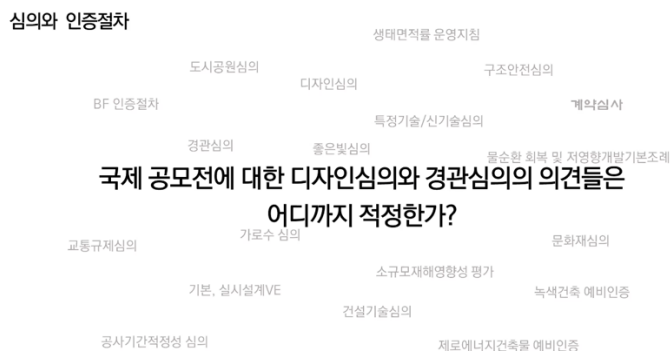
02. 총괄로서의 조경

업무분장

■ 별첨 : 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무분담세부내용

[illegible][illegible]

- 신묘인증 절차 부분. 우선 공모당선작에 대해서 디자인과 경관심의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듦.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심의를 하면 조건부가 결이 정말 많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라도 의견들을 다 반영해야 함.
- 많은 심의와 인증절차들이 있는데 이러한 심의와 인증절차 간에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음. 정말 다양한 심의와 인증절차가 있음. 다행인 것은 작년의 건축산업 활성화 구제가 어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축 허가 간소화 내용이 생겼고 과거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시행했던 일부 심의들이 사라지게 됨. 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심의 절차의 간소화 또는 통합화가 필요함



- 최근에 생긴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법률임. 이 내용이 지침으로 빨리 반영이 되어 된다고 생각함. 지금 광화문 광장 공사 때문에 감리 역할을 하고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와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의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음. 이 지침이 조경설계를 할 때 식재설계 때문에 조경 분야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수목이 모양이 정말 다양한데, 설계자가 상상하면서 설계했던 수목들이 감리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유사한 모양이 수목을 찾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음. 따라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수목을 직접 골라서 설계도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종합해보면 좀 더 나은 설계 환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조경의 별도발주 또는 공동도급 계약, 설계의도 구현, 총괄업무에 대한 설계비용에 대한 책정 등 법률 제정 및 지침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함

좀 더 나은 조경

제도 및 법률 개선 필요

- 별도발주에 대한 계약
- 공동수급 계획에 대한 지침
- 설계의도구현
- 총괄업무에 대한 설계비용 산정 필요
- 타분야의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조경진흥법〉

설계사무소를 위한 6가지 팁

- 공모에서부터 공동수급방식에 대한 고려
- 하도급 계약 시 최소한의 설계금액기준
- 과업내용서 애매하고 불필요한 내용 검토
- 업무분장 시 세부항목 검토와 공정간에 빠진 업무 확인 및 명확한 구분
- 합리적인 계약서

3. 좋은 계약서, 나쁜 계약서, 이상한 계약서 - 이해인 (HLD)

- 미국에서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어느 정도 표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 맞닥뜨린 것들이 굉장히 생소했던 것들이 많았음
-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예시는 거의 처음 맺었던 계약인데 뭐 용어나 이런 것들 부터 굉장히 생소했음. 과업지시서라는 말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고 계약기간이 날짜로 써져 있지 않고 계약시로부터 검사 필증교부시까지라고 되어 있음.
-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조금 당연하게 지급이 늦어졌을 때는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이제 사기업과의 계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클레임을 걸려고 해도 별 뭐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됨

기술용역 계약서

1. 용역 계약 명 : PROJECT TITLE
 2. 용역 내 용 : 본일 "과업지시서"에 의함
 3. 계약 기 간 : 계약서 ~ 과업완료일(교부시까지)
 4. 용역 계약 금액 : 155 - 부가세연도
 5. 지 급 방 법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함
 6. 계약의당초잔액 : 없음
 7. 지 제 상 교 조 : 지제 일(1)당 기술용역계약금액의 일천분의 삼(3/1000)

위 용역에 관하여 원주자 (이하 "갑")
 이과 원주자(주)과 수급자 (이하 "을")가 정함은 이 계약
 내용과 동부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상의
 모든 조항이 국내 법에, 성실조치 상호 믿음이 최선인 것을 증명하고 본 용역계
 약을 체결한다.

2015. DATE

example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
 채무부담명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
 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지제상금률: 지제 일(1)당 기술용역계약금액의 일천분의 삼 (3/1000)

**설계자가 늦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발주자의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도 명기되어 있는가?**

공공프로젝트인 경우 일반조항에 담겨있거나
위 조항에 따라 지급지연시 이자 지불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대가지급기한 자체를 늦추는 방법 너무 많고
사기업과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우 많아**

- 건축이 이제 주요 프라임이 됐을 때 저희가 같이 채무로 들어간 경우에 특히 이런 일을 많이 생기는데, 예컨대 납품은 다 했고 우리 업무는 끝났지만 뭐 적게는 10 에서 크게는 30%까지는 언제 받는 건지 모르는 일이 생기고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할 수가 없어서 꽤 많은 부분이 우리의 책임범위를 떠난 이후에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됨

- [illegible]

Some account services will not be available until you sign in again.

제 5 조 이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 "을"은 본 업무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제반 업무상의 하자 및 검토요청 등에 대하여도 이를 즉각 해소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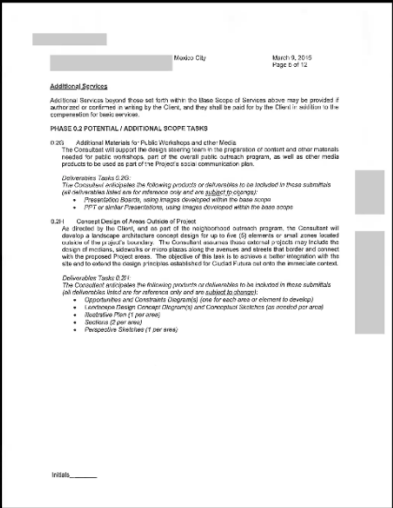
8

- ASLA 에서는 사실 매년 계약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있음. 굉장히 자세한 패키지부터 간략한 것까지 볼 수 있음. 우리나라 계약서도 대부분 일반 조항과 특수조항과 과업내용서, 설계비 내용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함.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항목이 자세한 문서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과업 범위를 정할 때 과업 범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추가 또는 보안용역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사실은 그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어 이거 내가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났으면 뭐 하지 라는 그런 계산 신경전을 안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됨



- ASLA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거 좀 더 알아봐야 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과업 범위와 추가하고 또는 추가라기보다는 이거를 추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충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과업이 뭐냐 뭐가 아니냐 그리고 뭐가 더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음
- Project Budget: 프로젝트 버짓관련하여, ASLA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리하고 있음. 공사비요율로 책정된 설계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경우 상식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음. 지자체가 특히 공원을 한 30 억에 짓겠다고 축소해서 내놓고 이에 따라, 설계비도 축소됐는데 나중에 한 70 억 어치 해보라고 하면, 하게 됨. 그러면 나중에 과정을 거쳐서 한 50 억 설계를 다시 하게 됨. 이렇게 되면, 애초에 받았어야 되는 70 억과 차액 45 에 대한 설계비도 날아가고, 추가로 변경한 20 억도 또 날아가게 됨.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 라는 문구도 철저하게 안내하고 있음
-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특이했던 점은 이 계약이 만약에 중도에 중단될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사용권도 다 중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은 정상적인 문구를 써 있는데 Work For Hire 라고 함. 이런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고용되어서 이걸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다 갖는다 즉 나중에 미래에 뭐 제 2 호점 3 호점을 할 때도 쓸 수 있다 라는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음



Additional Services
Additional Services beyond those set forth within the Base Scope of Services above may be provided if authorized or confirmed in writing by the Client, and they shall be paid for by the Client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for base services.

PHASE 0.2 POTENTIAL/ADDITIONAL SCOPE TASKS
0.2G Additional Materials for Public Workshops and other Media
The Consultant will support the design steering team in the preparation of content and other materials needed for public workshops, part of the overall public outreach program, as well as other media products to be used as part of the Project's social communication plan.

Deliverables Tasks 0.2G:
The Consultant anticipates the following products or deliverables to be included in these submittals (all deliverables listed are for reference only and are subject to change):

- Presentation Boards, using images developed within the base scope
- PPT or similar Presentations, using images developed within the base 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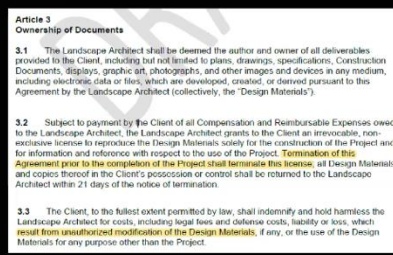
0.2H Concept Design of Areas Outside of Project
As directed by the Client, and as part of the neighborhood outreach program, the Consultant will develop a landscape architecture concept design for up to five (5) elements or small zones located outside of the project's boundary. The Consultant assumes these external projects may include the design of medians, sidewalks or micro plazas along the avenues and streets that border and connect with the proposed Project areas. The objective of this task is to achieve a better integration with the site and to extend the design principles established for Ciudad Futura out onto the immediate context.

Deliverables Tasks 0.2H:
The Consultant anticipates the following products or deliverables to be included in these submittals (all deliverables listed are for reference only and are subject to change):

-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Diagram(s) (one for each area or element to develop)
- Landscape Design Concept Diagram(s) and Conceptual Sketches (as needed per area)
- Illustrative Plan (1 per area)
- Sections (2 per area)
- Perspective Sketches (1 per area)

공청회 또는 다른 언론발표 준비

대상지 외부 지역에 대한 컨셉 디자인



Article 3 Ownership of Documents
3.1 The Landscape Architect shall be deemed the author and owner of all deliverables provided to the Cli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lans, drawings, specifications, Construction Documents, displays, graphic art, photographs, and other images and devices in any medium, including electronic, data or files, which are developed, created, or deriv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the Landscape Architect (collectively, the "Design Materials").

3.2 Subject to payment by the Client of all Compensation and Reimbursable Expenses owed to the Landscape Architect, the Landscape Architect grants to the Client an irrevocable, non-exclusive license to reproduce the Design Materials solel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roject and for information and reference with respect to the use of the Project.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shall terminate this license; all Design Materials and copies thereof in the Client's possession or control shall be returned to the Landscape Architect within 21 days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3.3 The Client,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Landscape Architect for costs, including legal fees and defense costs, liability or loss, which result from unauthorized modification of the Design Materials, if any, or the use of the Design Material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roject.

3.1 설계가는 발주자에게 전달한 모든 성과물의 저작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한다.

3.2 설계가에게 설계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해 설계가는 발주자에게 이 프로젝트의 건설 목적에 한해 설계물을 사용할 수 있는 취소불가한 비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 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전에 중단될 경우, 이 권한 (license)도 함께 중단된다.

3.3 설계물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로부터 면책

"WORK FOR HIRE" 조심하라

- 이제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예는 대부분은 공공 프로젝트는 아님. 공공 프로젝트는 당연히 글로 써 있는 일반 조항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과업지시서 내역서에 숨어 있지 그 계약서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각종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실제 내역에는 반영 안 돼 있고 과업지시서에만 있는 경우들이 있음. 그것들을 주의하고 기간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공공이 기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지만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과업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음. 그런데 외국에서는 연장이 다 그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

- 우리는 아직은 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지 기간의 부당한 활용에 대해서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명백히 감리업무인데 우리는 A/S 식으로 통칭해서 나중에 납품하고 나서도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음. 따라서 감리 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그리고, 내역서 내에도 많은 엑셀표들을 받아보면 숨어져 있는 할인율 같은 것들이 있으니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음
- 모호함과 애매함을 없앴으로써 서로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계약서에 이런 원칙인 것 같음. 그런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이상한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부당한 문구를 지우려고 하고, 한 번쯤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특수하게 쓰고 싶은 문구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함

4. 조경가 못 들어가는 못된 공원설계공모: 최근 공원설계 공모에서 나타난 참가자격 기준의 문제점 - 이남진 (조경기술사사무소 바이런)

- 조경가가 못 들어가는 공원 설계 공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나아지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음. 책임기술자 참가 자격 측면에서 공원 설계 공모는 조경가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건축설계 공모는 당연히 건축가가 하는 게 맞는데, 공원 설계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가는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고 대표사는 건축가가 돼야 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못된 공모라고 생각함
- 작년에 있었던 영주시 어린이 테마공원 및 지하 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당선된 작품을 보면, 실제 디자인 쪽으로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 조경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어이 프로젝트에 이제 대표 타이틀 역시 어린이 공원이었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사무소만 참가 하게 되어 있었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조경과의 참여 여부는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었고 공동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음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사례. 잠실한강공원에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이었으며, 참가자격이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시 총 3 인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었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쭙봤을 때 건축 그 건축사 사무소가 대표로 하거나 이제 참여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었음. 조경가만 참여 가능한 공모 였지만, 이것도 저는 그렇게 착한 공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기회는 동등하게 열어주고 디자인으로 판단을 받아서 이제 결국에 이를 잘하고 좋은 디자인을 제시한 팀에서 수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영주시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

- 공고일 : 2020년 3월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 설계공모대행 :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 설계공모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건축가만 참여가능 (조경 참여 불가)

못된 공모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 공고일 : 2020년 3월
- 발주기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설계공모대행 : tho'plan
- 운영위원장(PA) : 최신헌_(주)씨토포스
- 설계공모 참가자격 :

①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

→ 조경가만 참여가능 (건축 참여 불가)

못된 공모

- 울포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 및 지질, 환경, 건축, 측량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체"만 가능
- 최근에 진행된 부여 백마강 국가 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조경, 도시계획, 구조, 도로 공항, 교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업체"만 가능. 용역비는 2 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과업기관도 무려 한 1 년 가까이 되었음. 결국 이 일도 이런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업체만 가능한 일이었음.

-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고 당연히 조경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임. 참가 자격을 보면 건설 부문으로 도시계획 그리고 조경 건축 사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 용역을 참여할 수 있었음. 대표사는 1 항에 업체 측 도시계획이 대표사를 하게 돼 있었고 분담비율까지 정해져 있었음. 6 대 2 대 2 로 조경은 전체 용역비 20%밖에 안 되는, 그렇게 계산하면, 4000 만 원으로 1 년짜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음. 이 일은 아 두 번의 공고를 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됨. 서울시에다가 이 일은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건축적인 업무나 도시 계획적인 업무는 저희가 총괄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일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조경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거꾸로를 제시해서 이 참가자격 자체를 수정을 해서 공고를 냈음

울포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설계공모

- 공고일 : 2020년 2월
- 발주기관 : 보성군 해양수산과
- 설계공모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대표사는 지분이 높은 엔지니어링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사는 조경분야 기술자로 한다.

→ 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 건축, 측량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체”만 가능

못된 공모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공고일 : 2020년 4월
- 발주기관 :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 입찰 참가자격 :

가. 다음 ①항, ②항, ③항 모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③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규정에 따라 건축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분담비율 : 분담이행 시 대표사는 ①항의 업체가 됩니다.

→ 도시계획, 조경, 건축 모두 필요. 대표사는 도시계획

못된 공모

-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국제건축 공모전. 주관은 대구 건축문화연합이라는 건축가 집단 이었고 국내외 건축 뭐 도시 조경 모두 참가하다 가능하다고 돼 있었지만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국내 또는 외국에 건축사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 그래서 이 공문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스터 플래닝을 하고 주도를 했지만 대표자는 건축가일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역시 프로젝트였음
- 파리 근린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일은 많은 조경과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사전자문을 해주셨고 이 공무를 내는 과정에도 많이 관여를 함. 당연히 조경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가 돼 있었고 공원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도 참여할 수 있게 제시를 함. 다만 강제적으로 조경이 대표해야 된다 뭐 건축의 대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었고 모든 자격 제한은 이 둘 중에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오픈한 케이스였음.

- 노들꿈섬 공간 시설 조성 국제설계 공모. 조경설계 사무소들도 대표이사로 참여했고 어 건축가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했던 프로젝트였고 공모 자체도 상당히 흥행을 했었고 생산적인 결과물이 많이 나왔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 인도 허왕후 기념공원 설계 공모전. 이 프로젝트는 주관기관은 한국건축가협회였지만 그 전 단계의 기획단계 이제 전문위원으로서 조경과 분들이 참여하였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참가 자격에 있어서 건축조경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래서 실제 여기 참여를 한 팀들의 리스트를 봐도 건축회사도 있었고 조경회사도 있었고 같이 한 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한들이 나와서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조경설계사무소가 당선을 시켜서 진행이 됐던 일임

파리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도 허왕후 기념공원 설계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 2020년 6월 • 발주기관 : 양천구 • 설계공모 참가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 「기술사법」 제 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자 - 「건축사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자격사유가 없는 자. (단, 건축사 소지자는 조경분야 사업자와 공동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다) <p>→ 조경가, 건축가 모두 참여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 2016년 7월 • 발주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 설계공모 참가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건축, 조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시 총 5명까지 응모 가능하다. · 응모의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국내업체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자격사유가 없는 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 2조 4항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전문분야 신고를 필한 자 - 기술사법 제 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p>→ 건축, 조경 모두 참여 가능</p>

- 착한 공모는 공원이라고 해서 조경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건축을 감안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음. 그래서 필수적인 자격 조건만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함

5. 15 년 경력의 조경설계 초급기술자(최영준 랩디에이치 조경설계사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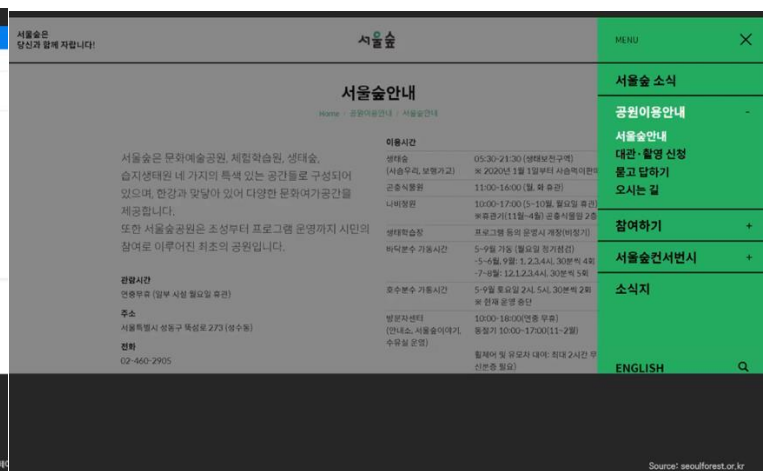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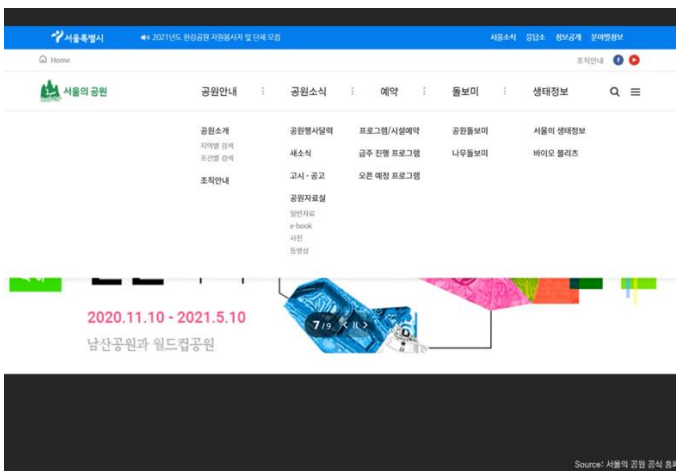
- 미국에서 학부 때부터도 파트타임으로 좀 일도 하고 한 서너 기획사 거치면서 이제 15 년 차라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이제 법적인 어떤 명칭을 굳이 따지자면 초급 기술자가 됨. 이게 인제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의 분류를 따른 것인데 뭐 해외 경력이 더 많고 국내 경력이 짧아서 이렇게 초급인 것도 아니고, 이유는 조경기사가 없기 때문임
-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급 규정되어 있음. 각 등급간의 승급이 조경기사 자격증이 취득 여부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그 사항이 됨. 개정되기 전에 한 뭐 십 년 전에는 학력이라든가 경험에 대한 인정범위가 훨씬 더 넓었음
- 기사나 기술사나 합격률이나 어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이거 평가한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그런 어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술사만 있기 때문에 그 범위도 다르고 일대일로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걸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역시 해외에서 경력도 만약 조경기사를 따고 해외를 갔으면,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음
- 건축분야를 보면은 그간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학제 개선과 이런 게 되면서 작년부터는 그 건축사 예비시험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었음. 그래서 5 년째 건축학과를 나오고, 삼년 정도를 건축사 밑에서 일을 하면은 모두가 동등하게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게 됨
- 미국의 경우도 그 규정을 살펴보면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역시나 그 학점 인정이 된 학교를 졸업해서 학사 또는 석사를 나와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 밑에서 한 2 년 정도만 아니라면 동등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이 두 가지로 규정되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가 되는 방법이 기술사 자격을 따내는 것과 엔지니어를 획득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급 기술사 한 명이 필수고 그 다음에 초급 기술사가 대략 한 세 명 정도 그리고 기타 요건도 필요한 상황임
- 젊은 설계사인 경우에 이런 요건이 필요한 이제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사실 어떤 저의 경험이나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공동 프로젝트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어떤 회사로서나 개인적인 차원으로나 성장이나 도약 같은 그런 계기를 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문구가 현상공모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 사실임
 - 이런 것들이 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더욱더 강조가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규모 아플리에 타입의 사무실에는 더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가득하던 기사가 나기도 했었음
 - 지난 몇 년간의 저희가 당선됐던 공모들 다섯 가지 사례. 첫 번째 경우는 문화센터 같은 건물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그 건축 중심의 공모였음. 하도급 협력사로 들어감
 - 두 번째 네 번째 역시 건축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지만 그 면적상으로도 꽤나 많은 면적을 이제 외부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공모여서, 조경 쪽에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음. 그래서 다른 그 자격 보완할 수는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들어가서 진행
 - 세 번째 영화 다섯 번째 공모의 경우, 하나는 경관 설계를 하는 공모였고 하나는 한강 관련 공모였음.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참여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대표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공모단계까지는 어떠한 자격의 어떤 제한이 없었음
-
- 발주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님.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칼같이 맞춰야 되는 하지만 사실은 또 민간 프로젝트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검증 절차랄지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게 아님.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건축 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경우처럼 초반
 - 진입장벽 정도는 열어두는 그런 제스처들이 생기면 조금 더 이 법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제안을 좋은 제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자격이나 이런 주제를 있어서 핵심을 좀 짚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모 지침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 나중에 번역을 하다가 영문 표현 중에 eligible 과 qualified 에 대한 차이를 되게 절감하게 됐던 순간 있었음.
 - 참가 자격이라는 문구가 있는 항목의 표현이 되는데 이를 1 차 번역에서는 참가요건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qualification requirement 라고, 필요조건인 것처럼 해 나왔었고, 마지막에 감수해주던 원어민이 보더니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를 위해서는 eligible 이라고 해야한다고 이야기 해줌. 둘 다 다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준을 조금 더 열어놓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정부를 판단해서 이제 그거에 그 합하냐? 안 하냐를 파악하는 그런 차이임

- 이 정성적인 작업인 설계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qualified 가 됐다고 반드시 어 좋은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함. 어떤 그 그리고 또 그런 qualification 스탠다드 선을 정할 때 조금은 단편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오래된 기준인 어떤 시험 하나로 많이 평가를 한다면 그리고 좀 단일한 경로를 밟아야 하는 것을 좀 강조한다면 조금 저희 설계의 본질적인 성격하고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제도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봄
- 그래서 eligible 한 능력이 있는 설계팀에서 qualified 가 되지는 않더라도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획과 공모에 대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qualification 에 기준을 정할 때 그 새로운 요즘 시대에 속도에 맞는 예가 필요하다 생각함
- 현재는 여러 가지 속도감이 달라졌고 그거에 맞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 나눴던 초급부터 특급까지 고런 그 단계적인 거는 조금 더 엔지니어에 기반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함. 이게 디자이너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교육과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이 있으면 그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그 선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함

6. 조경 프로젝트에서 크레딧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문제-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 오래 전부터 크레딧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 많이 선배님들 계속 얘기를 하셨고 또 좀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보고자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음
- 얼마 전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한 프로젝트 사례. 그 당시 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기까지 발주처와 한 다섯 번 정도의 마찰이 있었음.
- 발주처는 자기들은 돈을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다 실어야 하나고 이해를 못했음
-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그 어떤 창작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이름을 걸 만큼, 자신이 있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도 됨.
- 아무래도 연구과제에서는 연구진들의 어떤 각각의 어떤 전문성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많이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다고 생각함
-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여기는 주로 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어떻게 찾아가고 공원에서 어떤 활동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만 나와 있지 이 공원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설계를 했고 이 공원의 역사가 어떠하고 그런 얘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음
-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사실 많은 공원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큰 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한 번 들어가면 달라질까 해서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숲 홈페이지를 들어가 봄. 여기에서도 공원설계가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이에 반해 센트럴 파크센트럴 파크 공식 홈페이지. 파크 히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875 년에 이 공원이 누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는지 얘기가 되어 있음
-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여기에서는 공원 조성에 히스토리가 쪽 나오면서 2004 년 어이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조경가인 마이클 반 발켄버그를 직접 고용을 해서 어이들이 이 프로세스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음
- 거버넌스 아일랜드도어 디자인 팀이 누구고 또 컨스트럭션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개 회사 이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음
- 건축과의 관계에서 오는 크레딧 문제
- 2014 년에 마포 석유 비축기지 그 공모전. 이때 참가자 자격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를 해야 하고 국내 건축사가 대표일 공동응모가 가능함. 해외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공동응모시 두 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를 하고 있음. 조경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가로서 공식적인 크레딧을 얻을 수가 없었음

1.6 설계경기 참가자 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하며,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를 대표로 공동응모 가능]
-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시 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작품접수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설계경기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통신.토목.조경.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토목.조경.소방분야의 설계자격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Source: Creating a Cultural Depot from an Oil Tank Depot Competition Guidelines

- 그 춘천 캠프 페이지 근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이때에는 이렇게 특수분야어라고 명시를 하셨지만 또 이 분야 외에도 또 선택 분야로 해서 어이 프로젝트 관련 분야를 팀에서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제 순위권에 들었을 때 이걸 언론에 배포를 할 때 충분히 같이 참여한 사람 모두가 그 회사나 이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1.9. 참가자격

1.9.1. 1단계

1.9.1.1. 참가팀은 조경, 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한다.

1.9.1.2. 컨소시엄의 구성은 계획총괄(개인), 조경 분야 최대 2개사, 건축, 도로 분야는 각 1개사가 필수 분야이다. 컨소시엄의 구성 중 필수 분야는 공모 전 기간 동안, 교체, 추가, 삭제 등 변경이 불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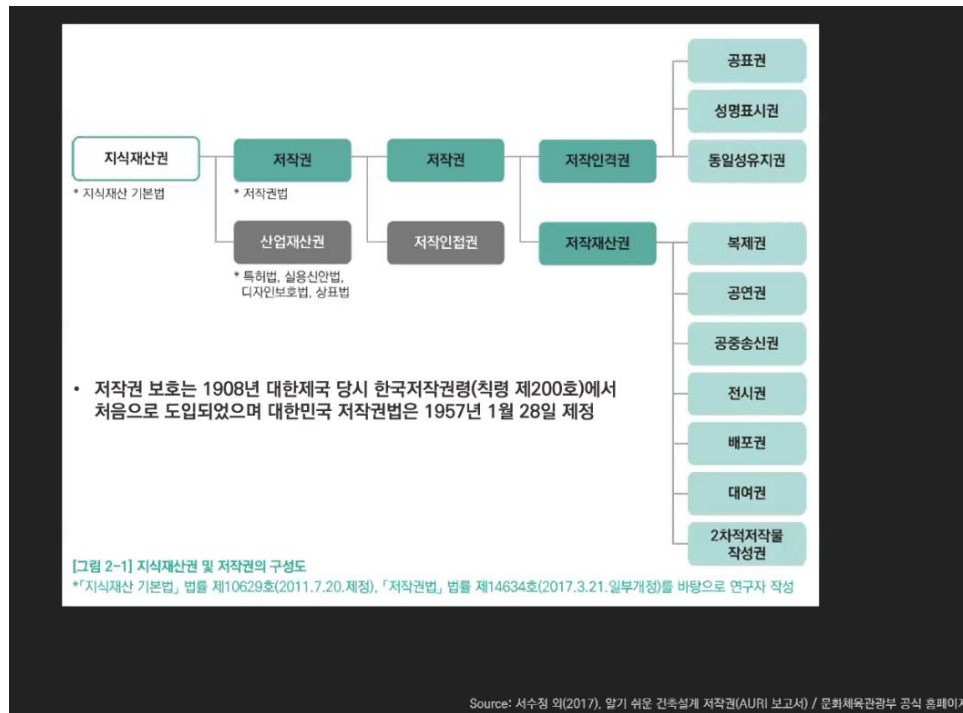
[컨소시엄의 구성]

단계	역할	필수 분야	선택분야
1 단 계	계획총괄	계획전문가(1인)	-
	대표사	조경 (1개사)	
	공동참여사	건축 (1개사)	필수분야 외 프로젝트 관련 분야업체
	"	도로 (1개사)	
	"	조경 (1개사 이내)	
2 단 계		1단계 팀구성 유지 (변경불가)	1단계 이후 교체, 추가, 삭제 등 변경가능

Source: Masterplan Design Competition for Chuncheon Camp Page Guidelines

- 브릭웰 프로젝트.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건축가 이름 위주로 검색이 됨. 네이버 디자인에서 브릭웰을 검색을 하면 박승진 소장님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 전문지에서 다루지고 있음. 여전히 대중적인 인식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낮은 평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봄
- 결국은 콘텐츠인 것 같음. 지금은 정말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고 그렇기에 저희 분야의 어떤 인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
- 저작권은 법적인 얘기임. 카피라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적인 권한이고, 뒤에서 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식재산권이라고 이름이 통일이 되었고 여기 안에는 결국 크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재산권이 있다고 보면 됨
- 이 저작권법을 보면 5 번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무역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라고 이제 건축 분야도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끔 개정이 되어 있음
- 저작권에 있는 저작인격권 즉, 저자에 관련된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배타적인 권리임. 그래서 이 두 가지다가 결국은 의 저작자를 보호하고 이 저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제적인 수입된 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임
-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이거를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함. 건축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건물을 복제를 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건 건축만의 문제는 아님. 2017 년에 정원 박람회 출품작 또 전 이거 보자마자 이거 표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2006 년에 이미 해외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형태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조경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가 인제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대상지를 다루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뭐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음



- 저의 제안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때는 조경계 내부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함. 두 번째는 인접분야 협력시 공식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 확보. 세 번째는 우리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도구, 즉, 저작권에 관련된 제도를 좀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사회적인식재고의 필요.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장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분야를 좀 더 어 인식시키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